



뽕은감 재배면적 증가 추세

뽕은감

2011년
5월호

※ 뽕은감 재배면적 작년대비 소폭 증가

- 신규식재 면적은 작년대비 2.9% 증가하였고, 폐원 등을 고려한 전체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적 동해피해 나타나

- 겨울철 이상저온 현상과 꽃샘추위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동해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월 이후 곱감가격 작년대비 강세지속 전망

- 지난해 곱감 공급량 감소로 곱감가격이 작년대비 상승하였고, 향후 뚜렷한 가격 하락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변동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 4월 이후 곱감 수입량 작년대비 감소 전망

- 수입산 곱감은 지난해 7월 이후 많은 물량이 들어와 충분한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4월 이후 곱감 수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주산지별 성목면적 증감율

단위 : %

구분	상주	영암	하동	영동	계
작년 대비	3.8	5.6	2.9	12.1	2.7

주 : 뽕은 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
(3월 28일~4월 4일)

■ 주산지별 신규식재, 재배면적 증감율

단위 : %

	청도	상주	영암	하동	영동	계
신규 식재	1.7	7.3	0.7	4.4	2.1	2.9
재배 면적	1.0	7.6	0.7	2.1	-2.0	2.1

주 : 뽕은 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
(3월 28일~4월 4일)

■ 주산지별 기상피해 증감율

단위 : %

	청도	상주	영암	하동	영동	계
작년 대비	2.0	10.8	12.2	6.5	11.2	8.8
평년 대비	1.2	8.7	12.4	3.0	7.1	7.4

주 : 뽕은 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
(3월 28일~4월 4일)

산지 동향

성목면적 작년대비 소폭 증가

- 올해 성목면적은 작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영동, 전남 영암, 경북 상주, 경남 하동 등 대부분의 임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목에서 성목으로의 자연생장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 작년대비 소폭 증가

- 신규식재 면적은 작년대비 2.9% 증가하였고 폐원 등을 고려한 전체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재품종은 해당지역의 기후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동시(경북 상주, 충북 영동), 반시(경북 청도), 갑주백목(경남 하동, 전남 영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 동해피해 나타나

- 겨울철 이상저온 현상과 꽃샘추위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동해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해피해는 묘목과 1~2년생 유목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결과모지 굵기가 4mm이하로 가늘고, 길이가 15cm 이하로 짧은 나무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 발생량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

- 겨울철 기온하락으로 올해 병해충 발생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동향 및 전망

꽃감 산지가격 작년대비 상승

- 1월 꽃감 상품 산지가격은 kg당 23,316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1.3% 상승하였고, 평년 동기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작황이 나빠 꽃감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4월 이후 꽃감가격 작년대비 강세지속 전망

- 지난해 꽃감 공급량 감소로 꽃감가격이 작년대비 상승하였고, 향후 뚜렷한 가격 하락요인이 없어 추가적인 변동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동향 및 전망

2월 꽃감 누계 수입량 작년 동기대비 증가

- 올해 2월까지의 꽃감 수입량은 900톤, 금액은 2,152천불로 작년 동기대비 수입량은 251%, 금액은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이후 꽃감 수입량 작년대비 감소 전망

- 수입산 꽃감은 지난해 7월 이후 많은 물량이 들어와 충분한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4월 이후 꽃감 수입량은 작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꽃감 월별 평균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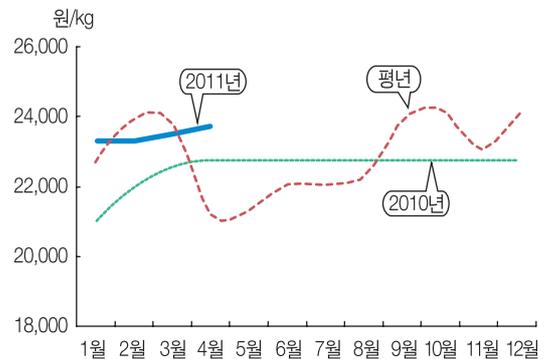
단위 : 원/kg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상 품	2011	23,316	23,286	23,492	23,750	-
	2010	20,940	21,962	22,508	22,750	22,750
	평년	22,689	23,946	23,842	21,249	21,315
중 품	2011	18,583	18,604	18,745	18,920	-
	2010	16,590	17,593	18,307	18,630	18,630
	평년	15,297	16,320	17,285	15,906	15,215

주 : 평년가격은 '05년 1월~'10년 12월의 월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이며, 산지가격은 논산, 영동, 장성의 평균가격을, 4월 가격은 1일~5일까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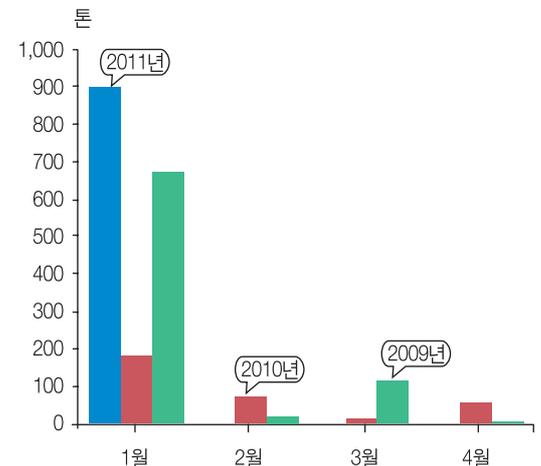
자료 : 산림조합 중앙회

■ 꽃감 월별 평균 산지가격 동향(상품기준)



자료 : 산림조합 중앙회

■ 꽃감 월별 수입실적(중량)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감나무의 동해(凍害)와 저장양분(貯藏養分)

지난해 늦가을 낙엽 전 저온과 겨울 저온으로 1년생 묘목과 나무세력이 약하고 착과량이 많았던 성목의 쇠약한 가지가 동해를 입었다. 즉 질소과잉으로 늦게까지 자란 묘목과 수확이 늦은 품종, 착과량이 많았던 나무, 나무세력이 쇠약한 1년생 가지 등 저장양분 축적이 적고 양분소모가 많았던 나무에서 피해가 많았다. 이와 같이 감나무의 동해는 품종, 저장양분과 관련된 가지의 충실도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동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력이 안정된 충실한 결과모지의 확보와 알맞은 착과량, 도장되지 않도록 비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문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조두현 박사

◎ 기압계 전망

4월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일시적인 남서류의 유입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날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5월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서류의 유입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두 번 정도 비가 오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5월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포근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골의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이남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음.

※ 기상청(www.kma.go.kr), 2011년 4월 13일 발표

■ 순별 기온 및 강수량

단위: °C, mm

구 분		서 울	강 릉	대 구	전 주	광 주	부 산	제 주
4월하순	최고기온	19.6	20.0	22.7	21.6	21.6	19.6	19.2
	최저기온	9.6	9.9	10.3	8.7	9.5	11.5	11.8
	강 수 량	26.2	25.3	19.3	26.0	27.7	46.8	30.3
5월상순	최고기온	22.0	21.4	24.4	23.6	23.2	20.8	20.8
	최저기온	11.8	11.5	12.3	11.1	11.6	13.1	13.4
	강 수 량	37.4	26.1	30.8	34.1	38.3	59.7	32.2
5월중순	최고기온	22.4	22.2	24.7	23.9	23.7	21.4	21.3
	최저기온	12.7	12.8	13.2	12.2	12.7	13.9	14.1
	강 수 량	40.2	30.4	25.4	34.2	36.5	49.7	33.9

주: 강수량은 평년값임(1981~2010년)

임업관측(뚝은감) 2011년 9월호 예고 (예정일자 : 2011. 8. 15)

• 내 용 : 뚝은감 재배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수입동향 및 전망

『임업관측월보』는 인터넷과 임업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우측 【바로가기】 메뉴바의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2) 3299-4235 FAX: 02) 960-0165
<http://www.forest.go.kr> ☎ 042) 481-4206 FAX: 042) 471-1446

담당자: 석현덕, 민경택, 안선진

이 「임업관측(뚝은감)」은 산림청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실에서 재배자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임업 및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 및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